

“농업 포기할 셈이냐”...거리로 뛰쳐나온 ‘성난 농심’

광주·전남 13곳서 쌀 개방 반대 시위 새정치 광주당사 앞에 나락 쌓아두고 식량주권 사수 촉구 순천선 농기계 100대 몰고 이정현의원 사무소까지 행진도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성난 목소리가 광주·전남 도로 곳곳을 메웠다. 자유무역 협정 등으로 위기감이 한층 절박한 농민들은 정부의 ‘합의 없는 일방적인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대한 강도 높은 반대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18일 오전 광주·전남 13개 시·군에서 정부의 쌀 시장 완전 개방 및 수입쌀 관세율(513%) 확정과 관련, ‘쌀 전면개방 저지 시·군 농민대회’를 개최했다.

광주시농민회 소속 농민 100여 명이 이날 오후 1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사를 향의방문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쌀 시장 개방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앞서 “쌀이 전면 개방은 농민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5t 트랙터에 장승을 때는 시위를 하며 정부 정책에 항의했다.

오현열(58) 광주시농민회 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농민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밀실담합으로 수입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할 것을 공개했다”며 “쌀 개방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집회에 참석해 팻말 시위를 한 김덕임(80·광주시 광산구 삼도동) 할머니는 “세

상 모든 공산품이 비싸지는데 쌀값만 떨어진다”며 “80 평생에 벼농사만 짓고 살았는데 이대로 수입쌀이 마구 들어오면 농사를 그만두는 것이 나올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광주 뿐 아니라 나주·곡성·화순·해남·순천·영광·담양·장흥·고흥·구례 등 전남 12개 시·군에서도 정부의 쌀 시장 전면 개방 및 ‘쌀 관세율 밀실 확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나주·곡성·해남 등에서는 농사용 트랙터와 트랙터 수백여 대를 끌고 나와 차량 시위를 벌였고 순천에서는 농민 400여 명이 순천시청 앞에서 농기계 100여 대를 앞세우고 새누리당 이정현 국회의원의 순천사무소까지 가두 행진했다.

농민회는 정부가 지난 7월 일방적으로 쌀 관세화를 통한 전면개방을 선언해놓고도 정작 농민 피해를 막을 정치적·제도적 방안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강력한 반대 투쟁을 벌일 것임을 예고한 상태다.

농민회는 향후 농기계·농산물 반납하기, 논 갈아엎기 등의 항위 시위를 계획하는 한편, ▲쌀관세화 전면개방 추진 중단 ▲국회 사전동의 실시 ▲여·야당·정부·농민단체 4자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정부가 쌀 시장 전면개방 이후 수입쌀 관세율을 513%로 확정된 18일 오후 농민들이 광주 서구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사 앞에서 나락을 쌓아두고 집회를 벌이고 있다. 광주·전남 농민회는 이날 광주·전남 13곳에서 농민대회를 진행하며 정부의 쌀 관세화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3분만에 출동했지만...화재 초기진압 힘든 섬지역

완도 노화읍 마트 불

소방장비·인력 대책 시급

섬 지역 소방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지만 개선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화재 등의 위험에 노출됐다는 우려가 높다.

특히 주민이 살고 있는 전남 섬만 290개가 넘지만 100가구 이상 살고 있는 면 단 위 10개 섬에만 소방 인력·장비가 배치된 데다, 10개 섬 중 소방펌프차와 구급차를 갖춘 곳은 고작 6개 섬(완도 금일·노화·고금, 신안 비금·흑산·안좌)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들 섬 지역을 맡는 소방 인력도 교대 근무를 고려하면 1~2명에 불과해 사실상 효과적인 대응이 힘든 실정이다.

18일 해남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새벽 2시40분께 완도군 노화읍 노화마트에서 전기 누전이나 합선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건물 전체(300㎡)를 태우고 9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노화119지역대 소속 소방관들은 신고 3분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화재 진압은 아예 포기하고 인접한 주유소 등 상가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는 데만 집중했다. 센

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건물이라 불길이 빠르게 확산한 것도 있지만 당시 보유한 장비(물 3000ℓ를 채운 소방차 1대)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단 2명의 소방관이 소방차를 몰고 나가 불을 끄는 것도 모자라 장비도 열악해 인근에서 살수차를 지원받을 때까지 수량을 조절해야 했을 정도다.

화재 이후 완도를 관할하는 해남소방서 소방관 수십 명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배편을 이용해 소방 장비를 싣고 오지 못한 채 ‘몸’만 와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노화도와 다리로 연결된 보길도에 있던 119 지역대가 투입된 뒤 진화됐다. 화재가 발생한 지 1시간 50분이 지난 뒤였다.

전 여친 부모 흥기살해

20대 남성 사형 선고

“딸과 헤어져 달라”는 말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 아파트를 찾아가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 사형이 선고됐다.

전남도내 섬이 노화도와 비슷한 현실이라는 점에서 외딴 섬 지역에서 화재가 나거나 긴급 구조 상황이 발생할 경우 60대 이상이 대부분인 섬 주민들이 알아서 가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전남도 소방본부 등도 이같은 현실을 알고 있지만 인원·예산 등의 문제를 전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탓에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본부의 경우 전남도 전체를 보고 소방력을 운용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jchung

창고형 할인점도... 복구청 또 패소

광주시 북구가 지역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내세워 창고형 할인점 건축 허가를 불허한 것은 잘못됐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할인점 신축이 가능하게 되는 만큼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는 지역 영세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고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병철)는 18일 롯데쇼핑(주)이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뒤엎고 승소판결 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3월 광주시 북구 신용동 860번지 일대에 신청한 창고형 할인점 건축허가가 불허가 처분되자 5월 광주 지방에 소송을 냈다.

북구는 당시 롯데쇼핑이 신청한 할인점의 경우 중·대형 박스단위로 물품을 사는 도매점 성격이 강한 창고형 회원제 할인점으로 공산품과 농수축산·식품이 일반 마트보다 10~30%가량 저렴해 인접 지역 및 전남도·소매 업체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내세워 건축허가를 불허한 바 있다.

또 주차장 부지를 사업지 진입로로 확보하려고 변경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창고형 할인점의 판매 특성상 교통량 증가가 예상돼 거주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건축허가를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1심 재판부와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한편, 북구는 앞서 이뤄진 윤암동 대형 마트 입점과 관련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여고 골목길서 삼승 음란행위



○대낮에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숨어 있다가 치마 입은 여성들을 보면

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서행. ○18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윤포(25·광주모 대학교 4년)씨는 지난 12월 12시30분께 광주시 동구 서석동 J여고 인근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 뒤에서 지나가던 이모(여·21)씨를 보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공연음란을 한 혐의.

○경찰은 현장을 목격한 이씨의 신고를 받고 범행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화면분석 등을 통해 윤씨를 붙잡았는데, 윤씨는 경찰에서 “치마 입은 여성만 보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진술.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허위 전세계약서로 9억원 불법대출

전직 유명 애널리스트·조폭 등 무더기 적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대출 서류를 허위로 꾸며 금융권에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전직 유명 애널리스트, 조폭력배, 대출 브로커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익)는 18일 허위 전세계약서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수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직 애널리스트, 폭력조직 서방과 행동대원 등 8명을 구속 기소하는 한편, 대출명목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7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허위 전세 계약서와 대출 명의인의 허위 재직 증명서를 시중은행 등에 제출, 10여차례에 걸쳐 전세자금 8억6000만원 등 모두 9억3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사무실을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하지만 직업과 재산이 없고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한 뒤 허위 주택 전세 계약의 임차인으로 둔갑시키고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 주택전세자금 대출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 잘 알려진 명문대 출신 전직 애널리스트 A씨의 경우 경매로 얻은 자신과 어머니 명의의 소형 빌라, 아파트 등 부동산 30여건에 가짜 임차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제공하고 대출금의 20%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1건당 1500만~1억2000만원까지 대출받아 허위 임차인에게 10~30%를 주고 나머지는 서류 위조책과 임대인, 임차인 모집책 등 대출 브로커들이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명목자에 포함된 한 탈북자는 지난해 3월 8일 전세자금 7700만원을 대출 받고 1주일 뒤 망명을 위해 네덜란드로 출국해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율기자 dok2000@

경매투자

- ▶ 특수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 단독, 공동투자 하실 분
- ▶ 낙찰물건에 투자 하실 분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경매 투자자 모집

- 1억~10억원
- 담보 제공 가능
- 경매에 관심 있는 분!

아파트형 콘도 / 별장 / 펜션 분양

주인 직매, 010-3180-8900

★ 전남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53번지
광주에서 1시간 10분 거리

- ★ 아파트 개념
전기/수도 개별, 노래방/식당/세미나실 사용 가능
100m 온천수, 편백나무 시공
TV등 빌트인 시설 별도
- ★ 산속의 궁전
화개장터, 쟁개사, 노고단 근접거리
- ★ 총 55세대 (18/28/56평) 중 2세대
28평 - 8400만원(용자 2300만원 포함)
56평 - 1억6800만원(용자 4600만원 포함)

오피스텔 "매매"

- 29평 - 12층,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양동 하천 방향, 원룸형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올수리, 주거용
매매가 - 7200만원
- 53평 - 13층,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창가, 코너, 전망좋은, 룸 2개 사무실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적합
매매가 - 1억5천500만원
- 77평 - 20층,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창가, 코너, 전망좋은, 최상층
사무실 용도로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매매가 - 2억5천500만원

주인직매, 010-3605-5000